

신학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로서,
하나님과 창조

신앙과 학문
1999 여름호

100

신학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로서, 하나님과 창조

이승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 조직신학 교수, 본회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의 첫째 부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먼저 자충족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이 피조계의 창조를 말하게 된다. 이 창조로부터 하나님과 피조계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과 창조

101

1. 세계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자충족적인 하나님

이 세상은 스스로 생긴 것이거나 우연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있게 된 것이라고 기독교 세계관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말을 따라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 가운데서 스스로를 증거 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계시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스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이를 흔히 하나님의 자충족성(self-sufficiency)이라고 불려 왔다. 그는 이 세상과 그 역사, 우리들 인간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그 스스로 충족하신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구태여 표현해 보자면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부터 애용된 대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원인이 되시는(causa sui)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자존적(自存的)인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우연적인 존재들(contingent beings)이라고 언급될 수 있음과 대조되는 ‘필연적 존재’(necessary being)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성격상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고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이런 말들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자충족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전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신(神)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후에는 똑같이 자기 스스로의 원인이신 신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신 개념(神概念)과 이교 철학자들의 신 개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개념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계시에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논의가 남게 된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선언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다. 그러므로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강한 주장을 하자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의 근거(ontic ground)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식적으로도 우리의 인식 근거(epistemic ground)가 되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

1)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自證하시는) 하나님, 즉 파스칼(B. Pascal)이 말한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심에 유의하라.

리는 존재하지도 않고, 알 수 도 인식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근원성이 여기에 있다.

2.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조의 인식 가능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최초의 일은 온 세상의 창조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다. 첫 인간인 아담도 다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그가 살 수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보지는 못했다. 모세도 이 창조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간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욥기 38:4-6, 12)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과 창조

103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직접적 대상자가 되는 읍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창조를 목격한 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겠노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없을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무모한 생각을 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는 것이다. 창조는 그 과정을 보고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창조는 그 과정을 인간들이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설명의 틀인 과학에 의해 증명하고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는 유일한 인식의 길밖에 없다고 다음 같이 선언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히 1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만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창조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므로 그가 창조에 대해서 하신 말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 2장에서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로부터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의 원천으로 여겨야만 한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저작 목적이나 그 문학 형식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옳음을 분명히 해 준다. 이에 대한 반론이 오늘날은 더 많으나, 1959년에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에서 알렌 맥클레이는 창세기 1, 2장은 우리에게 사실적 지식을 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쓰였음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의 말을 몇 부분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창세기 1, 2장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또는 풍유적으로 다루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없다— 히브리 시(詩)의 특징들이 창세기 1, 2장에서 발견되진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의 풍유로 취급할 수 없듯이, 창세기 1, 2장을 하나의 풍유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실적일진대 창조와 아담의 기록도 동일하게 사실적이지 아니라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 고찰 중인 창세기 1, 2장에 비유적 언어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여지는 거의 없다. 창세기 1, 2장은 성경의 어느 곳에 못지 않게 사실적이고 문자적이다.³⁾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이 시적(poetic)이라고 말하는 이들의³⁾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실적 기록의 필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읽고 그로부터 창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창세기 앞 부분을 역사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⁴⁾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창세기의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임을 잊고서 그것이 현대 과학이나 현대 철학의 언어인 것처럼 간주하고 말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성경의 언어는 “물리적 현상을 현대인의 과학적 정신과 연관해서 검토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보이는 대로 현상을 기술하는 현상의 언어(language of appearances)요, 일상적인 언어(ordinary language)인 것이다.⁵⁾ 그리고 성경은 때로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Young) 교수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상징적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나 사실은 묘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⁶⁾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이 수사 의문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은 그 각 장이 주고 있는 정보를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각 장을 서로 다른 창조 신학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다

-
- 2) 알렌 맥클레이, “The Principle of Interpreting Genesis 1 and 2,”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2, No. 4* (Fall 1959): 1-9, 윤영탁 역편, 『구약신학 논문집 (1)』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79), pp. 10-11.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1장이 시가 아닌 산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맥클레이의 입장과 같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에 유의하라. cf. G. von Rad, *Genesis*, trans. J. H. Marks and J. Bowden (London: SCM Press, 1972), p. 47: There is no “hymnic element in the language”;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1* (Waco, Texas: Word Books, 1987), pp. 9f.
- 3) cf. J. A. Thompson, “Creation, ii, The Genesis Account,” in *New Bible Dictionary*, 2nd edition (Leicester: IVP, 1982), p. 246: “The Whole is poetic.....”.
- 4) 이렇게 이 부분의 역사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변증하는 논의로 다음을 보라. Grudem, pp. 278f.;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pp. 52, 58; Edward J. Young, *Thy Word is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57), pp. 245ff.
- 5) 이에 대한 좋은 논의로 James M. Houston, *I Believe in the Creato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9; Grand Rapids: Eerdmans, 1980), p. 62를 보라.
- 6) Edward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Nudey,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House, 1964), 이정남 옮김, 『창세기 1장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pp. 86f.

른 창조 기사로 여기는 것은⁷⁾ 이상스러운 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한 조화로운 정보를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장이 주는 정보는 제1장의 정보를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며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일 것이다.⁸⁾ 예를 들어, 창세기 1:27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신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7, 20-25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창세기 2:7-25의 내용이 여섯째 날에 있던 일에 대한 보도라고 여기는 해석이다.⁹⁾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조화롭게 보는 해석만이 그 내용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 7) 이는 오늘날 구약 신학계의 일반적인 동향이다. 심지어 상당히 중도적이며 정경을 중시하는 정경 비판 (canonical criticism)의 주장자인 차일즈도 이런 입장을 표명한다. cf.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pp. 105-13. 심지어 우리가 후에 긍정적으로 인용할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마이어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며 작업한다. cf. pp.68, 69.
- 8) 같은 입장에서 두 장의 관계를 말하는 John H. Sailhamer, “Genesis,”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0), p. 41을 보라: “저자가 1장에서 단순한 사실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제2장의 기사 전체에서 설명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 9) 이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서술 가운데서 이를 명확히 언급한 예로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p. 294를 보라. 카이저도 같은 언급을 한다. 그러나 그는 따라서 제6일은 24시간보다 길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cf.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Chapter 5, 최종진 역, 『구약성경신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p. 104. 이와는 달리 창세기 2:8, 9에 나타나고 있는 식물은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에 나무가 나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Wenham, p. 61). 그런데 그는 2:19의 생물이 언제 창조된 것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그의 태도의 함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10) 다음을 보라. e. g., Herman Gunkel, *Genesis* (1901), trans. Mark E. Biddle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pp. xi, xiii, 103-17;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Dogmatics, Vol. II*, trans. Olive Wy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p. 74: “the mythical idea of a Primitive State in Paradise”; “this Paradise myth”; Eric C. Rust, *Nature and Man in Biblical Thought* (London: Lutterworth Press, 1953), p. 20: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창조 신화들(myths of creation)로 시작된다. 이 두 신화들 모두가 주변 백성들의 이교 신화로부터 온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고, 그 둘 모두에 언약 신앙의 변혁적 영향 아래에 있다”; Langdon B. Gilkey, *Maker of Heaven and Earth: A Stud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Garden City, N. Y.; Doubleday, 1959), p. 34; B. Otzen, H. Gottlieb and K. Jeppesen, *Myths in the Old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80), pp. 33-34.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1, 2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정보를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거나 우주적 신화로 간주하는 이들은¹⁰⁾ 과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긴 논의를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단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은 신화적 정신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휴스턴의 말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창조 이야기는 신화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사화(史話, Saga)라고 보는 바르트의 견해는 어떤가?¹²⁾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라.

창조의 역사는 ‘비(非)역사적인’ (non-historical) 역사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前)역사적인 역사’ (pre-historical history)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역사적, 전역사적 묘사와 기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시공간의 한계 내에서 영단편에 나타난 역사의 전역사적 실재에 대한 직관적이고 시적인 그림이라는 의미로 ‘사화’ (史話, saga)라는 말을 사용한다.¹³⁾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과 창조

107

우리는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그는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련의 사역들 가운데서 첫째 사역이며, 따라서 이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¹⁴⁾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 이야기는 단지 비유일 뿐이라고 보는 앨런 리차드슨이나 도널드 에반스의 견해는 어떤가?¹⁵⁾ 우리는 여기서 이에 대한 온전한 답변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휴스턴과 함께 바르트의 사화가 신화와 과연 얼마나 큰 거리를 지니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며, ‘비유’로 보는 것은 흥미롭기는 하

11) James M. Houston, *I Believe in the Creato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9; Grand Rapids: Eerdmans, 1980), p. 63. See also James Leo Garrett, *Systematic Theology, Vol. I* (Grand Rapids: Eerdmans, 1990), p. 294: “‘신화들’이란 말에 대한 신약의 모든 용례에서는 그 함의가 모두 다 부정적이다.”

12) Karl Barth, *Church Dogmatics*, trans. J. W. Edwards, O. Bussey and Harold Knight (Edinburgh: T. & T. Clark, 1958), III/1, pp. 81-94.

13) *Ibid.*, pp. 80, 81.

14) *Ibid.*, p. 42.

15) Donald Evans, *The Logic of Self-Involvement* (London: SCM Press, 1963), pp. 242-51.

나 창조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강조해야만 할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논의는 매우 흥미로운 논의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 기독교 안에서 큰 논란과 토론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논의와 관련된 문제 중의 한 문제만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자. 이 창조 기사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에 대한 논박(polemic thrust)을 담고 있다는 견해에¹⁷⁾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이 기사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2차적인 위치에 놓았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영감된 성경 저자가 (이방 신화의) 신화는 아니지만 이 신화들의 표상을 빌어 왔다”는 견해, 즉 성경 저자들이 “이교도들의 잘못된 실재관을 반박하기 위해서 논쟁적으로 그리했다”는 견해에¹⁸⁾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일에 창조 기사의 역사성을 의문시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신화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창조의 연대기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인 틀’ (literary framework)이라고 보는 견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의 강력한 대변자는 앙리 블로셰일 것이다.¹⁹⁾ 따라서 그는 창세기 1장에서는 “연대기는 그 취할 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²⁰⁾ 그는 자

16) cf. Houston, p. 68.

17)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 글들을 보라. Claus Westermann, *Creation*, trans. John J. Scullion, S. J.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pp. 43-45; Walter Zimmerli,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trans. David E. Green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pp. 34, 37; Houston, p. 65; Wenham, pp. 9, 10, 21f., 37; 그리고 Henry Wansbrough, *Genesis, Doubleday Bible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8), p. 3: “Against these [Babylonian myths], they reacted, using the same symbols but forming a wholly different picture.”

18) Houston, p. 65. 그러나 휴스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표상들인지를 말하지 않고, 창세기 1장 기록의 역사성에 대해서 별로 논의하지 않는다. 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는 이를 계시를 위한 문학적 틀로 여기므로 그 역사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19) Henri Blocher, *In the Beginning: The Opening Chapter of Genesis*, trans. by David G. Preston (Leicester: IVP, 1984), pp. 49-59.

20) Ibid., p. 52: “Chronology has no place here.”

신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들로 다음과 같은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 N. H. Ridderbos, Bernard Ramm, Meredith G. Kline, D. F. Payne, 그리고 J. A. Thompson.²¹⁾ 영블러드도 이와 비슷한 “틀 이론”(framework theory, 골격 가설)을 주장한다.²²⁾ 또한 휴스틴도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틀을 창조 행동의 6일에 문자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와이즈맨의 주장에 동감하면서 창 1:1-2:4을 계시를 위한 ‘문학적 틀’(the literary framework)로 보려고 한다.²³⁾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이 제안하였던 이런 틀 이론은 많은 이들에 의해서 주해적으로 비판받아 왔다.²⁴⁾ 데렉 키드너도 이런 ‘틀 이론’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날들의 진행은 그것이 질서 있는 순서(ordered sequence)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장엄하다. 일반적인 독자에게 주고 있는 기본적인 인상 중의 하나를 무시하는 견해를 취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다.”²⁵⁾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대한 ‘틀 이론’은 “성경의 참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개연성 없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는 그루뎀의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렇다면 6일의 날이 연속적인 날이지만 그 길이가 아주 오렐 수 있는 날들이라고 보는 견해는 어떤가? 물론 순전히 주해적인 견지에서 이를 주장한다면 이는 가능한 견해이다. 구약성경이 “날”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하루를 24시간 으로서의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동기가 오늘날의 과학적 입장과 성경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나

21) cf. D. F. Payne, *Genesis One Reconsidered* (Tyndale Press, 1964), pp. 19-23; J. A. Thompson, “Creation, ii. The Genesis Account,” in *New Bible Dictionary*, 2nd edition, p. 246: “an artificial literary structure.”

22) Ronald Youngblood, *How It All Began* (Vantura, Calif.: Regal, 1980), pp. 25-33.

23) Houston, pp. 58f. 그는 P. J. Wiseman, *Clues to Creation in Genesis*, edited by Donald J. Wiseman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7), pp. 136, 143-68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P. J. Wiseman, *Creation Revealed in Six Days*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48), pp. 33f을 보라.

24) 이에 대한 좋은 비판들로 다음을 보라. Edward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창세기 1장 연구』, pp. 70-76, 85-114(그는 특히 우트레흐트 대학교의 노르트짜히(Arie Noordtzij) 교수와 리델보스(N. H. Ridderbos) 교수의 ‘틀 이론’(framework hypothesis)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알더스(G. C. Aalders)의 비판에 동의하면서 틀 이론을 반박한다); Grudem, pp. 302-304.

25) Derek Kidner,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Chicago: IVP, 1967), pp. 54-55.

26) Grudem, p. 304.

은 것이라면(‘concordist view’에서 나온 것이라면)²⁷⁾ 우리는 좀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창조론’(mature creationism)의 주장자들이 말하는 것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지구나 우주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그루템의 말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날들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정에 이르기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할만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의 참된 시금석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대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려는 지도 모른다.²⁸⁾

27)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것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지질학자 데이비스 영의 견해이다. Davis A. Young, *Christianity and the Age of the Ea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2), pp. 13-67. 그는 지구가 45억년-47억년 되었다고 본다(ibid., p. 63, pp. 93-116; idem, *Creation and the Flood* [Grand Rapids: Baker, 1977], pp. 185-93). 또 이런 관점에서 쓴 책으로 Howard J. Van Til, Robert E. Snow, John H. Stek, David A. Young, *Portraits of Creation: Bibl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 World's 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을 들 수 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 입장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표현하는 이는 에릭슨이다. cf.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p. 382. 그는 자신의 선생님인 램을 따르는 것이다.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54).

이와 비슷하나 변형된 견해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 하루이나 그 날들 사이에 오랜 기간이 있다는 색다른 입장이 있다. cf. Robert C. Newman and Herman J. Eckelmann, Jr., *Genesis One and the Origin of the Earth* (Downers Grove, Ill.: IVP, 1977). 그들은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 우주의 배경 방사선(background radiation) 등을 통해 볼 때 이 우주는 150억년 되었다고 한다(pp. 15-34, 89-103).

28) Gudem, p. 297. 하루가 긴 시대라는 견해가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라고 주장하는 에릭슨도 “우리는 교의적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 지에 문제는 “계속적인 연구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한다(Erickson, p. 382).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긴 시간의 창조를 시사하는 예가 더 많다. 예를 들어, Wenham, p. 40을 보라: “창조의 6일은 사람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 때 웬햄의 의도는 6일의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3. 창세기 1, 2장이 보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특성들

그렇다면 창세기 1, 2장이 보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진술해 보기로 하자.

(1)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creatio ex nihilo)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중에 서 홀로 존재하셨고, 그 아무 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마카비서 7:28의 표현을 따라 표현해 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이다.²⁹⁾ 이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를 가장 근사하게 보여 주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히브리서 11:3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에, 또 로마서 4:17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할 때에 이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가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³⁰⁾ 이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라는 특성은 다음에 고찰할 “말씀으로 이룬 창조”라는 특성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지를 분명히 해 준다.³¹⁾

29) 이 전통에 서는 이들은 Theophilus of Antioch (To Autolyclus 2,4), Justin Martyr (1 Apol. 59), 그리고 Clement of Alexandria (Stomateis 5, 14), Irenaeus, Athanasius 등이다.

이에 반하여 창세기 기록은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에 반한다는 주장은 창세기 기록을 이방 신화와 연관 시키는 이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Eric C. Rust, *Nature and Man in Biblical Thought*, pp. 29, 43을 보라. 또한 아에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를 부인하는 신학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정 신학은 혼돈(chaos) 으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확인한다.” cf. John B. Cobb, Jr., and David Ray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p. 65.

30) cf. Grudem, pp. 263f.; Garrett, p. 299. 휴스턴은 이 구절이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의 증빙 구절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있음을 강조한다(Houston, p. 51).

31) 그러나 이런 용어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 예들, 또 ‘무’를 형이상학적 실체화하는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휴스턴의 논의도 유의해 보라. cf. Houston, “Creation ex nihilo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Houston, pp. 272-75.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신학적 문제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창세기 1:1을 1:2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창세기 1:1은 독립절인가, 종속절인가?”, “‘브레쉬트’를 절대형으로 볼 것인가 연계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³²⁾ 물론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 가장 강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의 한 사람인 영 교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단어 자체로서는 그것이 연계형인지 절대형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며, 사용된 상황을 보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³³⁾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문맥과 신학적 해석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해석을 취하는 것이 이 문맥에 잘 맞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더 잘 조화되는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을 종속절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등으로 번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2은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한 묘사가 된다. 이런 해석은 창조 이전에 이미 무엇인가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지닌다.³⁴⁾

그러므로 창세기 1:1의 ‘브레쉬트’는 절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⁵⁾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경과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고 표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분은 이를 원창조(primordial creation)³⁶⁾ 또는 첫 창조 행위(first creative act)라고 불렀다.³⁷⁾ 그런가 하면 이를 원물질(original material)을 만드신 것이라

32)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논의로 E.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p. 12-22;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pp. 103-108을 보라. 33)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 17. See also Kidner, p. 43.

34) 이를 의식하면서도 “브레쉬트”를 연계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로 다음을 보라. E. A. Speiser, *Genesi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p. 3.

35) 이런 입장을 잘 나타내는 논의로 다음을 보라. E.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p. 1-14; Sailhamer, p. 21; Wenham, pp. 12f.; Hamilton, *Genesis*, pp. 106-108.

36) cf. Keil, *The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trans. James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81), p. 48; G. Ch. Aalders, *Genesis*, trans W. Heynen, 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1), 1:53.

37) Wenham, p. 13. 그러나 이는 “중조설”(重造說, restitution theory, or gap theory)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최초의 완전한 창조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라.

고 한 이도 있다. 이 원물질이 창조된 상태가 창 1:2에 묘사된 것이다.³⁸⁾ “혼돈과 공허”라는 증언법(hendiadys)으로 묘사된³⁹⁾ 이 상황은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not yet inhabitable for man)을 묘사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cf. 사 45:18, 사 34:11, 신 32:10, 렘 4:23-26). 휴스턴은 이로부터 이는 이 세상이 조금 후에는 형태를 갖출 것이고 사람이 살게 될 곳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도 본다.⁴⁰⁾ 월터스가 말하는 대로 혼돈하다는 것은 ‘모양이 주어지지 않았다’(unformed)는 것이지, ‘모양이 왜곡되었다’(deformed)는 것이 아니다.”⁴¹⁾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 6일 동안의 소위 형성 주간(formation week)의 일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비롯된 창조”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태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시간도 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시간과 함께(cum tempore) 창조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이 태초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다. 웬햄은 창세기 1장과 1, 2절의 문맥이 ‘브레쉬트’가 시간 자체의 시작을 언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다.⁴²⁾ 또한 델리취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아주 잘 표현한 바 있다.

여기로부터 따라 나오는 역사의 시작이 있는 것이다— 이 시점으로부터 진술될 역사는 하늘과 땅을 그 대상으로, 그 장면들로, 그 요소들로 가지게 된다. 이 역사의 머리에 그 시작으로서, 또는 그 토대로서 이 세상의 창조가 있는 것이다.⁴³⁾

38) 이런 입장을 잘 드러낸 글들로 다음을 보라. Wenham, pp. 11-13, 15; Kyle M. Yates, “Genesi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pp. 2f.

39) 이를 증언법(hendiadys)로 분명히 묘사한 이는 Wenham이다(p. 15).

40) Houston, p. 59.

41) Wolters, p. 34.

42) Wenham, p. 14. Franz Delitzsch, *A New Commentary on Genesis*, Sophia Taylor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8), p. 76.

43) Franz Delitzsch, *A New Commentary on Genesis*, Sophia Taylor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88), p. 76.

우리는 시간과 역사가 이 태초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⁴⁴⁾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creatio per verbum dei)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명령에 의한 창조”(creation by fiat)라는 말이⁴⁵⁾ 말해 주듯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 준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창조적이고 유효적인 것이다.”⁴⁶⁾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또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지며 명하시며 견고히 섰도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시 33:6, 9).⁴⁷⁾ 이는 창세기 말씀과 함께 “그의 피조물인 세상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the creative command of God)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다.⁴⁸⁾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기만 하는 것일까? 미들턴과 월쉬가 말하듯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⁴⁹⁾

그러나 이것이 “말씀에 의한 창조”라는 말의 함의 전체일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44) 시작에 이미 끝에 대한 함의가 있음에 대한 좋은 관찰과 논의로 다음을 보라. Sailhamer, pp. 20f.

45) 이는 3절의 말을 Fiat lux로 번역한 별게이트 역의 역어로부터 나온 말임에 유의하라. Cf. Kichner, p. 47.

46) Wenham, p. 18.

47) 이와 연관되는 말씀들로 우리는 시 147:4, 18; 시 148:5; 사 40:26; 히 11:3 등을 언급할 수 있다.

48) 창 1: 6, 9, 11, 14, 20, 24, 26, 28, 29 참조. 이런 점에 대한 강조, 특히 창세기 1장 기록에서 그 기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좋은 관찰로는 Houston, pp. 52, 53; Wenham, pp. 6, 17, 38을 보라.

49) Middleton and Walsh, pp. 232f., n. 8.

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 시사해 주는 바
에 의하면 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빛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는 창조 사역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로고스
(Logos asarkos)이신 성자께서 그 창조의 주체(agent)요, 창조의 중보자 역
할(creation mediatorship)을 감당하셨음을 말하여 주는 말이다.⁵⁰⁾ 이는 요
한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해이기도 하였다.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
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
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through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라고 말하며, 이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서 “우리에게는 ……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고 말했던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
도 같은 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저로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
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성자께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던 것이다(잠 8:29-
30). 그는 창조 사역에서 성부의 최고의 장인(匠人, master craftsman)이셨
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저 하나
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상의 말씀인 것이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Trinitarian work of creation)

이로부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창조의 특성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
의 사역이라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다 그러
하듯이 창조도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 우리

50) 이와 비슷한 이해로 Wolters, pp. 35f.를 보라: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 이신 것이다 …… 우리는 그
의 말에서 최소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핵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배 교부들의 유명한 지침인 “삼위일체의 바깥사역은 나누어지지 않는다”(opera ad extra sunt indivisa)는 말이 여기도 적용된다. 특히 창조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위에서 언급한 말씀이신 성자의 사역, 그리고 최초로 창조된 원물질을 싸고 계시며 그로부터 말씀의 작용에 따라 피조계를 내시는 성령의 작용을 생각하면 삼위일체의 각 위가 창조 사역에 놀랍게 관여하고 계셨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일 수 있는 것이다.⁵¹⁾ 같은 동사 “메라헤페트”(mera ee, hovering)가 신명기 32:11에 사용된 것으로부터 “오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비슷한 표상이 사용되고 있음은 여기서 의도된 것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림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고 말하는 사일하머의 말은 매우 흥미롭다.⁵²⁾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루뎀이 말하듯이, 성령의 “보존하시며, 유지하시며, 통치하는 기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⁵³⁾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에 성령이 관여하심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성령께서 생명 없고 형태 없는 땅 덩어리 위를 마치 새가 보금자리에서처럼 품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 주신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뜻하시는 바를 그의 말씀에 의해 산출하게 되도록 하셨다.”⁵⁴⁾ 워필드는 이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를 품고 계셨기(brooding) 때문에 그 '혼돈' 한

51) '하나님의 바람'이나 '대풍'이라는 해석(G. von Rad, *Genesis*, p. 49; Speiser, Westermann, *NEB*) 또는 '하나님의 에너지의 작용'이란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신'으로 보는 해석을 애호하는 해석들로 다음을 보라. Victor P. Hamilton, "Genesis," in *Evangelical Commentary on the Bible*, ed. Water A. Elwell (Grand Rapids: Baker, 1989), p. 11; idem, *Genesis*, p. 115; E. J. Young, 『창세기 1장 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2), pp. 63-68; Houston, p. 60(비록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말이다). 웬햄은 좀 절충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옮기는 해석을 취하고자 한다(Wenham, pp. 17, 36f.).

52) Sailhamer, p. 25.

53) Grudem, p. 267.

54) Schultz, *Old Testament Theology*, E.T. II, 184, cited in B. B. Warfield,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ed. by Samuel G. Craig (1968): 127-56, 윤영탁 역, 『구약신학 논문집 (3)』(서울: 성광문화사, 1985), p. 109, 주14

물들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명령 - “빛이 있으라” (창 1:3), “궁창이 있으라” (1:6),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창 1:9),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1:20)- 는 창조 명령에 순종하며 또 순종할 수 있었던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뜻한다. “빛이 있으라” 고 하늘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은 수면 위에서 품고 계시던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었다 피조물 위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피조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암시된 것은, 피조물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오로지 피조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인 듯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바 아직 형태를 못 갖춘 땅 덩어리(world-stuff)에 내재해 계셨고 그의 내재하심으로만이 그 덩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를 갖춘 지구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은 구약의 최초부터 만물의 존재와 존속의 원리이며, 모든 움직임과 질서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며 생성의 원인으로 나타난다.⁵⁵⁾

그래서 이후로도 성령은 일반적으로 피조계를 온전케 하시고, 채우시며,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신다”고 말하며(요 26:13),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 104:30).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관여하시는 일이 계속적인 것임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창조의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관여하셨다고 단언할 수 있다.

(4) 질서 있는 창조(orderly creation)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매우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첫날 빛의 창조와 낮과 밤을 만드심은 넷째 날 낮을 주관하게 하신 태양,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달,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신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⁵⁶⁾ 역시 들

55) Warfield, pp. 109-10.

56) 사실 천체는 첫째 날 하늘의 창조에 포함되고, 넷째 날의 사역은 그것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하며 해석은(pp. 26, 33f.) 상당히 의아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째 날 만드신 궁창 아래 물에 번성하는 물고기와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모두 다섯째 날 창조되어 서로 잘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날 만드신 바다와 육지(물),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자라나는 각종 식물들은 그 곳에 살며 그 식물들을 먹고사는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과 연관된다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창조는 매우 질서 있는 창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틴 교부들이 말한 바 “하나님의 구별의 사역”(opus divisionis dei)과 “장식의 사역”(opus ornatus dei)을 구분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⁷⁾ 이를 다음과 같이 도해해 볼 수도 있다.⁵⁸⁾

	형태(Form)		내용(Fullness)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넷째 날	낮과 밤의 광명들
둘째 날	바다와 하늘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의 피조물들
셋째 날	빈 땅	여섯째 날	땅의 피조물

신앙과 학문
1999 여름호

(5) 그 종류대로(after its kind)의 창조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때나 물고기나 새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신다. 이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그 종간(種間)의 차이가 분명하며, 그 종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12절).⁵⁹⁾ 또한 다섯째 날에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21절). 그리고 여섯

57) 이런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William G. Heidt, *OSB.,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1, Old Testament Reading Guide, no. 9*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67), p. 9를 보라.

58) 이는 Derek Kidner, *Genesis, An Introduction & Commentary* (Leicester: IVP, 1967), p. 46에서 나온 것이다. 키드너는 이것이 그리피스 토머스(W. H. Griffith Thomas)의 주석(*Genesis: A Devotional Commentary* [1946 edition, Eerdmans], p. 29)에서 얻은 정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틀에 대한 관찰은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39), p. 157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는 아주 일반화된 관찰로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다. Houston, p. 60; Wenham, pp. 6f 을 보라.

재 날의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24-25절). 여기서 말하는 “그 종류대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식물과 물고기와 동물들을 분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본래적 사명은 우리의 분류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류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한 차이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종간의 차이점을 넘어서는 그런 진화적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물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각기 다른 다양한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다.⁶⁰⁾ 더구나 최후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after the image of God) 창조하셨다고 하시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아주 별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다.

(6) 선하신 창조(good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매우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후에 그것을 기뻐하시며 매우 좋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전체가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⁶¹⁾

59) 식물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 cf. J. A. Thompson, "Creation, ii. The Genesis Account," in *New Bible Dictionary*, p. 246. 그러나 “풀”이 식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하위 분류가 “채소”와 “나무”라는 견해도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 “풀”에는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없다는 것과 29-30절에는 채소와 나무만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cf. Wenham, pp. 20f. (그는 화란의 W. H. Gispen, *Genesis* (Kampen: Kok, 1974), 1:57을 언급한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에 있다.

60)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는 J. A. Thompson, "Creation, ii. The Genesis Account," in *New Bible Dictionary*, p. 247을 보라.

61) 이점에 대한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의 좋은 논의로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1985), 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서울: IVP, 1992), pp. 59-61을 보라.

물론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이 피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피조계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의해서 이 피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본래는 매우 선했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타락하고 죄에 빠진 것도 그 전체가 악해진 것이지 그 중 일부는 선하고 일부만 타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은 비성경적 가르침이다. 창조될 때는 영과 물질인 몸 모두가 선했던 것이고, 타락한 상황에서는 영과 물질 모두가 타락한 것, 다 더러워진 것이다. 더구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고 말한다(딤후 4:4, 5). 이 세상 전체에 구속의 힘이 다 미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구속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이미 구속의 빛에서 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구속의 빛을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것도 이미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와 관련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은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 이라고 말한다(딤후 4:1). 그들의 이런 주장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⁶²⁾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과 관계에 대해서 구속의 빛에서 접근해야 한다. 혼인도 구속의 빛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식사도 구속의 빛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모두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62) 필자는 오래 전부터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 본문을 들어 설명하기를 즐겨 하였다. 근자에 필자와 같은 언급을 하는 이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를 언급하고자 한다. cf. Grudem, p.

4. 창조와 기독교 세계관적 함의

이 세상이 스스로 있는 것(自然)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성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계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이는 이 피조계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존(dependence)을 분명히 한다. 이 세상은 그 시작에서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는 것이 아닌, 항상 의존적인 존재이다. 욥은 “생물들의 생명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욥 12:10). 또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를 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다(행 17:28).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거두시면 생명의 중단이 있다(시 104:29).⁶³⁾ 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그 존재와 기능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⁶⁴⁾ 이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관여하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관여하시는 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immanence)와 초월(transcendence)을 동시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6)고 말할 때 그는 이를 단숨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해 서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경배와 존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결단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에 더하여서 존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

63) cf. 로버트 P. 마이어, “경이예의 초대: 자연의 신학에 관하여”, in *Tending the Garden*, ed. Wesley Granberg-Michaelson, 정중하 옮김, 『구속과 땅의 회복』(서울: 엘림, 1991), p. 64.

64) Houston, pp. 61f.: “— the sovereignty of God is absolute and nothing exists without Him.”

다 줄 때에 우리는 그 존재를 넘어서서 그것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딤후전 6:17).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을 자신 밖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하나님의 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나와 존재하게 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적 존재를 다스리신다. 즉, 피조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인 것이다. 비록 의존적이긴 해도 항상 그 의존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있게 하신 존재라는 말이다. 휴스턴 이 잘 표현한 바와 같이, “창조자의 초월 덕분에 실재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⁶⁵⁾ 그러므로 이 세상을 천주교에서 이해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이 객관적 존재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존재이다. 이런 뜻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함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물질만이 있다고 보는 유물론(materialism)이나, 오직 정신만이 있다고 보는 유심론(pan-psychism)이나, 이 세상이 모두 신이나 신의 부분이나 표현일 뿐이라고 보는 범신론(pantheism)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과정 안에만 계시며 초월도 내재적 초월뿐이라고 보는 만유재신론(panentheism)이나 하나님과 우주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원론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원론(dualism)이나, 창조만을 인정하고 계속적인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자연신론(deism)을 가지거나 그런 사상에 빠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셋째로, 이 피조계는 그 창조주의 뜻을 구현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유목적적으로 창조하신 것이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

65) Houston, p. 61: "By the Creator's transcendence a real world exists."

다. 이를 피조계 내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 중심으로 고찰 할 수도 있고, 이 피조계가 지향하고 나갈 목표를 중심으로 고찰 할 수도 있다. 또는 이 둘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법과 목적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이루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섭리에 작용하는 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므로 우리는 섭리를 “계속적인 창조”(creatio continua)라고 불렀던 선인들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고 섭리라는 의미로 의미 깊게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때때로 이 말을 오해하거나 과정신학에서처럼 의도적으로 오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를 “계속적인 창조”(creatio continua)로 말해 보려는 일이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오해요, 오용인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계속적인 창조”(creatio continua)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 섭리로서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다.⁶⁶⁾

그런데 이 피조계 가운데서 이를 의식하고 이 피조계 전체를 그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존재는 하나님께서 온 피조계의 최후의 면류관 같이 창조하신 인간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이 창조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함의를 잘 드러내야만 할 것이다.

66) 현대 저자들 가운데 이런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이 용어를 잘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 휴스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cf. Houston, p. 61.

· 신앙과 학문
· 1999 여름호

124

書評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 원호택

왜곡된 진리 / 박재우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 홍병룡

C. S. 루이스의 기독교 세계 / 김석관

정의로운 정치 / 민종기

책소개 / 홍병룡 · 박희주 · 양성일